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

### 전주시, 시장실서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에 지정서 수여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분석·수요처 상담 주선 등 수출기업 육성

전주시는 10일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주)착한음식과 (주)인에코, 렉스젠(주) 등 3개 업체에 2018년 글로벌 스타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시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센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함께 올해로 4년째 추진하는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출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시장 분석, 수요처 상담 주선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해외 시장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주)착한음식은 찬물만으로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즉석 발열용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용품으로 가치가 높은 원천 기술을 보유해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 업체는 또 우수한 제품 설계와 디자인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YouTube 등에 제품 설명 동영상 등의 해외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아웃도어 등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가격경쟁력, 가능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또한, 아이에코블록(기능성친환경 건축내장재)으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주)인에코는 경제적

등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술적인 차별성과 난이도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수출유망 기업이다.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을 생산하는 렉스젠(주)의 경우,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차 단속 등에 활용하는 판독 시스템의 성능 및 인증 테스트를 모두 거쳐 성능 및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 시장에서의 수요

및 성능과 소프트웨어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확보한 기업이다.

시는 이날 글로벌 스타기업 지정서를 받은 선정기업들에 대해 정확한 해외 시장 조사와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사업 다각화와 수출성과 달성을 도와 전주 경제를 이끌어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우수한 기술을 보

유한 후보 기업에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기업역량과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이들 3개 업체를 최종 지원업체로 선정했다.

안동일 시 중소기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전주시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센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을 메워줌으로써 수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10일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주)착한음식과 (주)인에코, 렉스젠(주) 등 3개 업체에 2018년 글로벌 스타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워크숍

### 문화재청 후원, 무형문화재 발굴 방법 찾는 학술 행사 전문가·연구자·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25명 참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무형문화재 발굴에 참여할 방법을 찾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제2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이 23~27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다.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 아태국제훈련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국내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연구자,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25명이 참가해 유네스코가 2003년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강조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무형유산 목록작성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한다.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은 영국 코번트리대 해리엇

디킨 박사와 퀴리소 국립고고인류학연구소 리치벨 안사노 소장이 워크숍 퍼실리테이터로 나선 예정이다.

협약 소개, 협약상 목록 작성 의미, 국내외 목록 작성 현황과 당면 과제, 목록 작성 방법론,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목록 작성 유용성에 관한 주제 강의와 외부 발표, 무형유산 현장 답사, 목록 작성 실습 뒤 결과 발표 등으로 이뤄진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한국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협약 정신을 확산하고 전문가, 연구자, 정부 등 이해 관계자의 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국제적 화제 사이에서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워크숍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주민 공간으로

### 리모델링 후 청년·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주택으로 공급 폐가 수준의 빈집은 주차장·공용 텃밭으로 주민에게 제공

전주시는 도심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7월 현재 주민공간 조성 대상지 6개소, 반값임대 1개소를 선정, 주차장·텃밭 조성을 위한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도심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청년과 저소득층 등을 위해 5년 이상 주면시세의 반값 임대료로 제공하거나 빈집을 철거 후 3년이상 공용텃밭과 주차장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대상지 선정 및 현지조사를 거쳐 빈집 3개동을 추가 선정, 세아하우스형 청년 반값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억 1,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15개동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역 빈집이 총 1,010동으로 조사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방치기간과 발생원인, 안전상태 등 빈집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에 근거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에는 주거복지 관계 공무원과 공공건축가, 주거복지네트워크 위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공유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대책, 빈집 활용 방안, 빈집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엽 시 생태도시국장은 "내년에는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사업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진북동, 여성예비군소대·통우회 동내 환경 정비 전주시청서 시민 500명 대상 열린강좌 열려

전주시 여성예비군소대 및 진북동 통우회는 10일 진북동 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더운 여름 날씨 속에 진북교~진북터널 구간 인도잡초 제거에 중점을 두고 10여 명의 예비군 소대원들과 통우회 회원 40명이 참여했다.

정다교 전주여성예비군 소대장은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진북동 주민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동내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장미화 진북통우회 회장은 "우리동네 주민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거리를 다녔으면 좋겠다"며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한 소감을 밝혔다.

최춘희 진북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환경정비에 적극 참여해주신 예비군소대원 및 통장님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이 협력하여 깨끗한 진북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북동은 매주 화요일을 특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여 자생단체와 협력 주요 취약지에 대한 집중정비를 하고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제178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10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 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 현대자동차와 삼성그룹 등 국내외 기업에서 전략·인사팀가 컨설팅을 하여 서진영 경영철학자(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원장)를 초청, '4차 산업혁명기술과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서 강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대체되고, 나부터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막연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두려움을 1차 산업혁명의 러다이트 분석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디지털, 네비게이션과 닌텐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의 원천인 기존 조직과의 기술융합, E&E 산업의 파생효과 등에 대하여 딱딱한 공학적 접근이 아닌 인문과 고전을 결합, 알기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임경희 MC의 진행으로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송효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